



# 우유工業의 전망

이 재 영

(전국대 교수)

서구제국의 선진 농업에 있어서 낙농업이 차지하는 위치는 우리나라의 米作農業에 해당된다고 이해하면 쉽다.

오늘날의 산업사회에 있어서도 낙농업은 강철공업, 자동차공업등과 함께 10대산업의 서열을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마치 성년으로 장성한 자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있는 어머니의 위치와 같다고 생각된다. 즉 2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세대를 잉태해서 대견하게 어른으로 길러낸 모체는 농업인데 그중에서도 낙농이 그들과 같은 대열에서 막강한 힘을 유지하고 있으니 말이다.

박물관 같은 곳에서 선인들이 쓰는 칼이나 신을 보고 그 크기에 따라 생존했던 인물의 몸 크기를 추정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또 땅속에서 발굴되는 짐승의 발이나 손뼈 한마디를 보고도 그 짐승의 크기를 추측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낙농업이 본래의 커지는 산업으로서의 거대한 몸통의 일부를 들어낸것은 작년과 금년에 걸친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잘 입증된 것으로 안다. 즉 뚜렷한 시장기반을 갖지 못한 아이스크림이라는

낙농식품이 불과 2~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백억의 매상을 올림으로써 식품업계는 물론 일반 산업계에 이르기까지 낙농업이라는 새로운 거물의 일부를 보고 놀라움을 숨길수 없었던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는 아직 "새발의 피"에 불과하며 거인의 손톱하나가 들어난 것에 불과하다. 불과 10만두 정도의 젖소를 가지고 TV, 신문, 잡지를 주름잡고 있으니 앞으로 100만두쯤 되었을때의 모습이란 거창하고 불만한 거구의 위엄을 충분히 과시할 것이 틀림없다.

우리나라 낙농도 이제 초기단계들 벗어나는 진통을 겪으면서 계속 궤도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금년초로 예상되는 10만두선 돌파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때는 송아지에 있어서 초유에서 대용유로 넘어가는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후 약 100만두선에 육박할때 비로소 완전히 젖을 떼고 풀을 먹는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印度國立農業協會(Indian national Commission on Agriculture)의 아세아인의 1인당 하루 우유 권장량은 250g인데 이것을 기초로

계산해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47인당 착유우 1두가 필요하게 되므로 결국 약 70만두의 착유우에서 육성우, 중모우등 합쳐서 100만두쯤이 있어야 우선 수요의 충족이 가능하다. 이와같은 수요가 유효화되기까지는 물론 경제수준, 문화수준, 교육수준등의 점진적 향상이 뒷받침 해야 하겠지만……

이와같은 기본적인수요가 충족된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우리 낙농이 유도되어 나갈 것인지는 매우 추측하기 어렵다.

외국의 경우에는 인구 1인당 1두가 되는 나라도 있으며, 미국은 20인당 1두, 소련은 5인당 1두가 되는등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즉 100만두선을 넘어선 다음 낙농의 양상이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것으로 추측이 될 뿐이다. ▲한국인의 우유식품에 대한 잠재적 기호성 ▲한국적 유제품의 신개발 ▲낙농업의 수출산업으로서의 가능성 ▲21세기에 있어서의 식생활의 패턴, 위에서 몇가지 각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우리낙농을 전망해 보았거니와 여러가지 요소들을 기초로 볼때 100만두선까지는 발전해 갈 전망이 분명하며 필자도 이것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 지리라고 낙관하는 사람들과 뜻을 같이한다.

끝으로 이와같은 미래를 예측하면서 한국낙농인이 치뤄야할 큰 도전과 시련을 능률적으로 소화해 나가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첫째, 낙농가(생산업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전국규모의 단체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유업전반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현재 및 미래에 예상되는 문제를 연구하며 기술의 해외의존을 지양하고 공동광고로 경비를 절약하는 등을 주요사업으로 다룰 유업협회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산림청에 초지조성을 전담할 局을 신설하고 경작지로 이용불가능한 야산 임야를 초지로 조성하여 낙농단지의 기반을 만들어야 하며 정부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는 낙농가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임대하거나 불하할것. 특히 세번째 문제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면에서 造林—邊到의 산림청조직을 개편하여 식량증산과 직결시키는 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보며 산림청은 농수산부로 넘겨져야 일이 능률화 될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낙농가들에게 초지조성을 맡가므로서 경험부족, 기술부족, 자금난등이 겹쳐 허덕이게 하는것 보다는 정부의 기술진과 장비, 그리고 쌓아올린 경험을 조직적으로 이용하므로써 초지사업은 향상될 것이며 초지사업과 조립사업은 마땅히 山林정책의 二大기간이 되어 할 것으로 확신한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우유식품공업은 이제부터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 높은 성장율(년평균 약 25%)과 무한한 잠재시장이 보여주듯이 앞으로 국내낙농의 발전과 발을 맞추면서 식품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될것이 틀림없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제품의 매장고는 연간 약 800억으로 추산되는데 이것은 10년후 젖소두수가 약 30만두에 달하면서 약 3,000억으로 늘어날것으로 보이며 그때부터 식품업계의 선두주자로 계속 그 위치를 유지하게 될것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어느곳에서나 우유 식품공업이 모든 식품업계를 압도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중반부터 가능하리라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어떤식품업체도 우유를 떠나서는 닥아오는 시대에서 일류메이커로 살아남을 수 없을것은 이미 너무도 여러곳에서 증명된 상식인 것이다.